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5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3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2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
- ▶ 광양항 자동차 화물 처리량 누적 1,000만 대 달성
- ▶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 중국, '24년 4월 수출입 증가세 전환
- ▶ 독일 함부르크항, 유럽 최초 컨테이너선에 육상 전력 공급 시작
- ▶ 호주 뉴캐슬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계획 추진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머스크, 올해 컨테이너 무역 성장 개선 전망
- ▶ G7, '35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 ▶ 인도, 저품위 철광석 수출 관세 계획 폐기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¹⁾

-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30일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지난 3월 1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안)이 의결된 후 민간투자자인 (가칭)부산 신항양곡터미널(주)과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 추진될 예정임
-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신설사업은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양곡부두를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서측으로 신설 이전하는 사업임

 - 양곡부두 5만 톤급 1선석, 사일로 19만 톤 등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1,921억 원이며 완공되면 현재 연간 저장능력인 130만 톤 대비 40% 이상 향상된 185만 톤의 저장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사업시행자는 '27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 내 착공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2-4단계 이후 약 10여 년 만에 진행되는 항만 분야 민간투자사업인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와 연계하여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 밝힘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위치도 및 조감도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04.29.),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6798&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B%B6%80%EC%82%B0>(2024.05.15. 검색)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6798&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B%B6%80%EC%82%B0> (2024.05.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24년 부산항 모항 크루즈 9항차 예정²⁾

-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잇달아 운항할 예정으로 5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9항차가 계획되어 있음

 - 국내외 4개 여행사가 이탈리아 국적 코스타 세레나호(11만 4천 톤, 정원 3,780명)를 전세선 형태로 빌려서 운항할 예정임
 - 모항 크루즈 상품은 3박 4일부터 5박 6일까지 다양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기항지가 아닌 모항 크루즈의 경우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 부산항에 모여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큼

 - 모항 크루즈 관광객들은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쇼핑, 관광, 숙박 등을 하는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  부산항만공사(BPA)는 앞으로도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운항 확대를 통해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에 힘쓰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4.29.),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036>(2024.05.15. 검색)

2) 인천항

1 인천항만공사(IPA),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³⁾

- IPA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컨소시엄을 선정함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화물 창출 능력, 부두 운영 역량, 재무 상태, 자본조달계획, 임대료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IPA는 향후 3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 협상을 추진하고, '24년 8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실시협약 체결 이후 '27년 정식 개장을 위해 건축공사, 자동화장비 도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IPA,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 운송 환경 개선을 위해 「IPA-화물연대·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간담회」 개최⁴⁾

- IPA는 컨테이너 화물기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인천항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함
 - 반·출입 시간 지연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했던 인천신항 HJIT의 경우 IPA와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선과제 발굴과 이행으로 반출입시간을 1월(평균 29.6분) 대비 14분 단축한 15.6분을 기록함
 - 금회 간담회를 통해 IPA와 화물기사들 간 터미널 내 하차 시 안전모, 안전조끼 착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IPA는 화물연대-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공동으로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실시와 화물기사들의 근무환경 안전 개선을 노력하기로 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5.17.),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menuKey=400&boardKey=217&articleKey=27491>(2024.05.17.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5.12.),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7413&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4.05.17. 검색)

3) 여수·광양항

1 광양항 자동차 화물 처리량 누적 1,000만대 달성⁵⁾⁶⁾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지난 5월 3일, 광양항의 자동차 화물 누적 처리량이 1천만 대를 달성했다고 밝힘

- 자동차는 석유화학, 제철, 컨테이너와 함께 광양항을 대표하는 화물로, 지난 '20년 53만 대를 처리했고, '23년에는 2배 이상 성장해 국내 2위에 해당하는 111만 대의 물동량을 기록함
- 자동차 화물은 품목 특성상 부지를 많이 차지하고 자동차운반선(Roll-On Roll Off Ship) 또한 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양항(수심 16m 이상)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 최근 4년간 광양항의 자동차 물동량 처리실적은 '20년 53만 대, '21년 88만 대, '22년 92만 대, '23년 111만 대로 집계됨
- YGPA는 이에 따른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로 312억 원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5.03.),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712&category=\(2024.05.17.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712&category=(2024.05.17. 검색))

6) 뉴스1(2024.05.03.), [https://www.news1.kr/articles/?5405566\(2024.05.17. 검색\)](https://www.news1.kr/articles/?5405566(2024.05.17. 검색))

4) 울산항

1 해양수산부·울산항만공사(UPA), 자동차 운반선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⁷⁾

- 해수부와 UPA는 5월 13일, 울산항에서 자동차 운반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함
- 훈련에는 해수부와 UPA, 울산광역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남부소방서, 남부경찰서 등 14개 기관과 업·단체, 국민체험단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함
 - 최근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운송 증가에 따라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실전 대응능력을 높이고,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관계기관 대응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둬
 - 훈련은 현대글로벌비스의 협조를 받아 자동차 운반선을 실제로 활용했으며, 발화된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으로 차량이 전소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UPA, 북신항 액체부두 임대사업자 재공모⁸⁾

- UPA는 3월 준공된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1선석’의 임대사업자를 재모집함
-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석 270m와 총 9,944㎡ 면적의 항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난 1차 임대사업자 공모에서 1개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심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재공모에 들어감
 - 공모는 지난 1차 임대사업자 공모와 동일한 요건이며, 5월 31일까지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신문(2024.05.13.),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784>(2024.05.21. 검색)

8) 뉴스1(2024.05.21.), <https://www.news1.kr/articles/5422431>(2024.05.21. 검색)

5) 평택·당진항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일제 점검 실시⁹⁾

- 평택청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해 담당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함
- 점검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 4천 k㎡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임
 - 단속은 점용·사용 허가시설 70개소를 포함한 항만 전역이며, 공유수면 목적 외 사용, 무단 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와 연안 방치 폐선박 존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 평택청은 점검 중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9) 뉴스핌(2024.04.30.), <http://www.newspim.com/news/view/20240430000848>(2024.05.21. 검색)

6) 포항항

1 포항항 부근 연안 해역 정밀 조사 실시¹⁰⁾

-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4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포항 및 동해항 인근 해역의 수심, 항해에 장애가 되는 위험물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임
 - 이번 조사 해역인 포항항과 동해항은 동해안의 주요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의 통항이 잦으며, 특히 정치망과 같은 고정형 어장이 많은 동해항 인근은 항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수로측량 전용 해양조사선 동해로호(136톤)에 다중빔 음향측심기, 해저퇴적물 채취기 등 해양조사 장비를 탑재하여 해당 지역의 최신 수심 및 항해 위험물(암초, 침몰선박 등) 등의 자료를 확보할 예정임
 - 취득된 자료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 간행되는 해도 개정예 반영되어 선박 운항 시 활용될 계획임

포항 부근 연안 해역 정밀 조사 구역도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 https://www.khoa.go.kr/user/bbs/detailBbsList.do?bbsMasterSeq=BOARD_MST_0000000003 (2024.05.20.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0)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2024.04.29.), https://www.khoa.go.kr/user/bbs/detailBbsList.do?bbsMasterSeq=BOARD_MST_0000000003(2024.05.20.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¹¹⁾

동해시는 지난 5월 20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 동해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항만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함

-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으로 반영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의 본격 시행을 대비한 것으로 동해시는 ’23년 12월부터 동해항 및 그 배후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
- 지난 5월 20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간보고회는 문영준 부시장의 주재로 지휘부와 관련 부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용역수행 기관인 청운대 산학협력단은 과업 진행 상황 보고와 더불어 동해항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역 지정 로드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

동해시는 ’23년 하반기부터 송정동 33만 m²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당초 송정동 거주지를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나, LS전선 부지 좌측 송정동·나안동 일대로 선회함

- 이 구역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한 수출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련 법 개정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노력을 통해 동해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지역특화형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 반영을 추진, 이 특례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30만 m² 미만의 도내 중·소형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동해시의 항만배후단지 구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동해항 배후물류단지 지정은 단기적으로 동해항(청정 화물)과 동해 신항(벌크, 잡화, 에너지 원자재)의 항만 기능 재배치를 위한 초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배후단지 구성과 연계해 송정 지역 주민의 이전 보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동해시 보도자료(2024.05.20.), <https://www.dh.go.kr/www/selectBbsNttView.do?key=489&bbsNo=95&nttNo=182089>(2024.05.22. 검색)

8) 목포항

①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 목포신항에 공장 설립을 위한 MOU 체결¹²⁾

- 목포시는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인 베스타스, 글로벌 물류기업 머스크와 함께 지난 4월 22일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목포신항에 설립하기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함
 - 협약은 약 3,000억 원을 베스타스와 머스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 m²(약 6만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이 외에도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머스크는 목포신항 신규 물동량 창출 등에 노력할 것을 합의함
- 전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힘
 - 해남 화원산단은 약 200만 m² 규모로 7,300억 원을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해당 면적의 절반 이상은 해상풍력 관련 업체에 우선 분양될 예정임¹³⁾
 - 원자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위한 공용부두 및 해상풍력 설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 역시 조성될 예정으로 '27년 완공 예정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② 목포시, 목포신항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¹⁴⁾

- 목포시는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가하여 국내외 물류업체 및 화주를 대상으로 목포신항 홍보활동을 펼침
 -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물류산업 전문 전시회로 약 150여 개 기업이 총 750여 개 홍보 전시관을 운영함
 - 목포시는 전남도, 목포신항만운영(주)과 공동으로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목포신항의 현황, 이점, 투자 환경, 인센티브 등에 대해 홍보함
- 목포시 및 목포신항만운영(주)는 이번 홍보활동이 실제 목포신항으로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2) 철강금융신문(2024.04.23.),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079>(2024.05.15. 검색)13) kbc(2024.05.14.),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5140055>(2024.05.15 검색)14) 광주매일신문(2024.05.07.),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15074921629232008>(2024.05.15. 검색)

9) 대산항

① 서산시, '26년 준모항 국제 크루즈의 대산항 유치 추진¹⁵⁾

- 충남 서산시는 서산을 모항으로 출항한 국제 크루즈가 5월 14일 부산항에 성공적으로 회항하면서 '26년 준모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서산에 위치한 대산항은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시는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5월 16일 도쿄에서 개최한 크루즈 포트세일즈에서 외국적 선사 및 여행사들에게 대산항의 인프라와 지역문화유산 등의 관광지와 관광 콘텐츠, 특산물을 홍보하였으며, 크루즈선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 기항지 여행상품 기획 시, 서산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0) 군산항

① 관세청,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 개최¹⁶⁾

- 관세청은 지난 4월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개최함
-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 원을 투입해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함
- 지금까지 군산세관에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들은 평택·인천 등으로 운송되어 통관절차를 밟아야 했음
- 이로 인해 물류비용 증가와 세관의 위험관리 제약 발생, 반면 군산항 반입 특송화물 물량은 지난 '19년 77만 건에서 '23년 115만 6천 건으로 4년 만에 약 50% 증가함
-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으로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 등 군산항의 항만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5) 충청일보(2024.05.17.),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347>(2024.05.21. 검색)

16) 조세일보(2024.05.02.),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5/20240502515815.html>(2024.05.17. 검색)

11) 마산항

① 마산항 연안크루즈 관광 재개를 위해 운항 사업자 공모¹⁷⁾

- 창원특례시는 '24년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마산항 제2부두 내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을 모항으로 관광유람선을 운항할 사업자를 모집함

 - 이는 7년 만에 창원연안크루즈업 운항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창원 연안에서 크루즈 관광을 재개하려는 창원시의 계획임
 - 공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선박 규모 150톤 이상, 선령 15년 이하, 승선인원 150명 이상의 유람선을 소유하거나 구입 계획이 있는 자로서, 관광진흥법과 해운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과거 국동해운은 '14년부터 '17년까지 마산연안크루즈터미널에서 마창대교와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앞바다를 돌아오는 뱃길을 운영했지만, 운항 적자로 인해 중단됨
 - 당시 창원국동크루즈호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고급형 관광유람선으로, 선상회의, 돌잔치, 결혼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
 - 창원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연안크루즈 관광을 재개하여 마산항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해양관광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지원 희망 업체는 5월 31일까지 시청 관광과로 방문하여 제안서를 제출, 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박, 관광, 해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운항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 선정된 사업자는 유람선 모항 선석을 배정받고,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안전시설, 방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받게 되며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광 홍보도 창원시에서 지원할 방침임
 - 운항사업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박을 확보하고 운항을 개시해야 하며,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함
- 창원시는 “관광유람선 유치가 마산만 일대 해양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운항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 한편, 창원시는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유람선과 크루즈선 기능을 갖춘 선박 운행을 준비 중이며, 이 공모는 마산항 연안크루즈 관광을 재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발전을 목표로 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7) 창원특례시 보도자료(2024.05.13.),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2.web?amode=view&idx=7985711&gcode=1011\(2024.05.22. 검색\)](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2.web?amode=view&idx=7985711&gcode=1011(2024.05.22.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중국 '24년 4월 수출입 증가세 전환¹⁸⁾

- 📌 중국의 '24년 4월 수출입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지난달 위축된 시장에 회복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함
 -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3월 수출의 낮은 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됨
 -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8.4% 증가하여 시장 전망치인 4.8%를 크게 웃돈 수치를 기록함
- 📌 4월의 수출입 통계는 소비자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부동산 위기와 같은 경제적 도전을 겪고 있는 중국에 추가적인 경제 정책 필요성 등의 논의를 촉발하고 있음
 - '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인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부양책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중국 수출입 전년 대비
증가율

Change in exports and imports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return-growth-april-imports-beat-forecast-2024-05-09/\(2024.05.15. 검색\)](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return-growth-april-imports-beat-forecast-2024-05-09/(2024.05.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8) REUTERS(2024.05.09.),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return-growth-april-imports-beat-forecast-2024-05-09/\(2024.05.15. 검색\)](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return-growth-april-imports-beat-forecast-2024-05-09/(2024.05.15. 검색))

2 중국 국영기업, 페루 찬카이항 운영권을 두고 페루 정부와 갈등¹⁹⁾

- 페루 정부는 태평양 연안에 건설 중인 메가포트인 찬카이항의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 코스코쉬핑에게 독점운영권 합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함
 - 찬카이항은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남미 유일의 심해 항만으로 '19년 중국 코스코쉬핑이 투자하여 개발을 진행 중으로 35억 달러 1단계 사업에 13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현재 7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임
 - '21년 페루 국립항만공사(APN)는 초기에 항만 개발 및 운영권과 관련된 조건을 토대로 코스코쉬핑에게 터미널 독점 운영권을 부여함
 - 페루 정부는 APN이 코스코쉬핑에게 운영권을 부여할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권이 부여되었다며 행정적 오류를 이유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음
- 코스코쉬핑은 페루 정부 요구에 대해 초기에 합의된 조건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건 변경 요구가 프로젝트 진행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코쉬핑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 채널을 통해 약 6개월의 협의를 통해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는 서한을 보냄
- 찬카이항 운영권을 두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국제 중재로 이어진다면 찬카이항 개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9) REUTERS(2024.05.08.), [https://www.reuters.com/business/peru-port-conflict-escalates-chinese-firm-insists-original-terms-2024-05-07/\(2024.05.15. 검색\)](https://www.reuters.com/business/peru-port-conflict-escalates-chinese-firm-insists-original-terms-2024-05-07/(2024.05.15. 검색))

2) 아시아



1 세계 최대 철강 및 에너지 회사 중 하나인 포테스큐(Fortescue), 싱가포르항에서 암모니아 동력 선박 시험²⁰⁾

- 호주에 본사를 둔 포테스큐(Fortescue)는 싱가포르 항만청(MPA)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 항만에서 Fortescue Green Pioneer 선박의 추진 및 기동성을 시험함
 - '24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이 시험에서는 4.4톤의 액체 암모니아와 수소화 식물성 기름(HVO)을 선박 추진 연료로 주룽섬의 Vopak Banyan 터미널에서 급유함
 - MPA는 암모니아 동력 선박 시험을 위해 Raffles Reserved Anchorage에 테스트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안전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운영 센터(EOC)를 설립함
 - MPA, Fortescue(포테스큐), Vopak 등의 대표들은 연료 적재 및 해상 시험 작업을 수시로 모니터링함
- 암모니아 동력선박의 추진 및 기동성 시험에는 질소 기반 배기가스 처리 검증과 암모니아-HVO를 혼합한 선박의 엔진 성능 평가도 포함되어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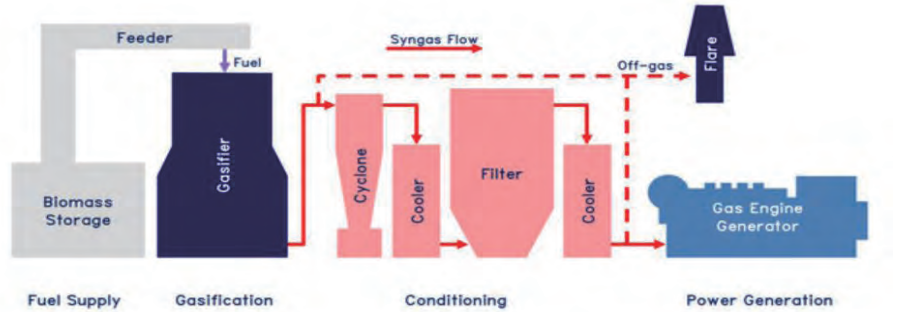
2 NYK, 세계 첫 우드펠릿 추진선 개발 추진²¹⁾²²⁾

- 일본의 대형선사인 NYK는 세계 최초로 우드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우드펠릿 추진선 개발을 추진함
 - NYK는 지난 5월 13일 자회사인 NYK BULK & PROJECT CARRIERS, 영국 재생에너지 발전그룹인 Drax Group, 프네이시조선과 함께 세계 최초 우드펠릿 추진선 개발 및 건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4개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9년까지 우드펠릿을 가스화해 연료로 사용하는 우드펠릿 추진선을 개발해 건조할 계획임
 - NYK의 우드펠릿 추진선은 우드펠릿, 폐목재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LNG와 비슷한 가스 형태로 합성시키는 선박용 바이오매스 가스화 시스템 개발이 핵심임
 - 바이오매스 가스화 시스템이란 우드펠릿을 완전연소되지 못하도록 소량의 공기를 공급해 불완전 연소시켜 가연성 높은 가스를 생산, 발전기 등의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추진력을 얻는 기술임

20) Port Technology(2024.05.0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fortescue-trials-ammonia-powered-vessel-in-the-port-of-singapore/>(2024.05.17. 검색)21) Seatrade maritime(2024.05.14.), <https://www.seatrade-maritime.com/dry-bulk/nyk-develop-wood-pellet-powered-ship>(2024.05.23. 검색)22) 한국해운신문(2024.05.15.),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586>(2024.05.23. 검색)

- 바이오매스 가스화는 직접 연소시키는 방식보다 열효율이 높아 친환경 선박 연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시스템이 장착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22% 정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선박용 바이오매스 가스화 시스템 구조도



자료: 한국해운신문,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586>(2024.05.23.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 인도, 이란 차바하르항(Chabahar port) 개발 협력²³⁾²⁴⁾

인도와 이란은 차바하르항의 개발 및 관리운동을 위해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함

- 인도는 경쟁국인 파키스탄의 카라치항과 과다르항을 우회하여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이란 남동부 해안에 차바하르항을 건설해 왔음
- 차바하르항은 파키스탄 국경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인도양에 있으며,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과다르항을 개발하고 있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8년 말 인도는 차바하르항의 운영권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항만의 개발이 늦어짐
- 지난 5월 13일, 인도와 이란은 차바하르항 개발을 위한 10년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인도 항만 글로벌 리미티드(IPGL)는 차바하르항 개발에 3억 7,000만 달러(한화 5,061억 원)를 투자할 예정임
- 미국은 이번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수용은 하되, 차바하르에 있는 인도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3) Port Technology(2024.05.14.),<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ndia-iran-partner-to-develop-chabahar-port/>(2024.05.23. 검색)

24) 뉴스1(2024.05.14.),<https://www.news1.kr/articles/?5414840>(2024.05.23. 검색)

3) 미주



① 미국 LA항, 세계 최초 수소 동력 RTG 크레인 운영 시작²⁵⁾

LA항은 세계 최초로 수소 동력의 RTGC(Rubber Tired Gantry Crane)를 도입함

- 해당 크레인인 ‘H2-ZE RTG Transtainer Crane’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미쓰이E&S의 미국 자회사인 페이스코(PACECO)가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의 지원을 받아 개발됨
- 지난 5월 15일부터 LA항 유센 터미널(Yusen Terminal)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하루 16시간 동안 기존의 디젤 동력 또는 하이브리드 RTGC와 동일한 효율로 해당 크레인을 운영하는 등 향후 4년에 걸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임
- 해당 크레인인 100% 수소 동력으로 가동되는 세계 최초의 상업 RTGC로서, 일반적인 디젤 기반의 RTGC 대비 연간 400배럴 이상의 석유와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Port Technology(2024.05.1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ceco-debuts-hydrogen-powered-rtg-at-port-of-los-angeles/>(2024.05.24. 검색)

2 산 페드로 베이(San Pedro Bay) 항만, 트럭·철도 화물 체류시간 단축²⁶⁾

📍 '24년 4월 기준 LA항와 롱비치항 등 산 페드로 베이 항만의 컨테이너 평균 체류시간이 개선됨

- 태평양상선협회(PMSA)에 따르면, 4월 기준 트럭으로 현지 배송되는 컨테이너가 항만 터미널에서 평균 2.5일을 머물렀으며, 이는 3월 기준 2.59일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임
- 철도 화물의 복합운송 컨테이너의 경우, 평균 체류시간은 4.55일로 2월과 3월 기준 평균 체류시간인 6.26일, 7.02일 대비 현저히 감소함
- 체류시간의 단축은 항만 터미널에 5일 이상 머무는 철도 운송 컨테이너의 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해상 터미널과 운송업체 간 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해석됨

산 페드로베이
수입 적진 체류시간



자료: Port Technology,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pedro-bay-ports-cut-container-dwell-times/> (2024.05.24.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6) Port Technology(2024.05.1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pedro-bay-ports-cut-container-dwell-times/> (2024.05.24. 검색)

4) 유럽



1 함부르크항, 유럽 최초로 컨테이너선에 육상 전력 공급 시작²⁷⁾

- ▶ 함부르크항은 2년간의 계획과 1,300만 유로(1,4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컨테이너선에 육상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함부르크항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 함부르크항은 수년간 크루즈 선박에 육상 전력을 공급해 왔으며, 해당 기술을 화물선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힘
- 첫 번째로 육상 전력에 연결된 화물선은 18,000TEU급 CMA CGM Vasco de Gama로, 이 선박은 '15년에 건조되어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많은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알려짐
- 2년 전부터 시작된 이번 인프라 투자는 세 개의 대형 선박 부두에서 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장치의 연결 용량은 7.5MVA로 공공 전력망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할 예정임
- 함부르크 컨테이너 터미널의 육상 전력 설치를 위한 자금은 절반은 독일 연방 경제 및 기후 보호부를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짐
- 함부르크항은 '25년까지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과 크루즈 부두에서 육상 전력 공급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운사들이 엔진을 가동하는 대신 육상 전력에 연결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계약 체결 과정이 진행 중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The Maritime Executive(2024.05.19.),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hamburg-first-in-europe-to-supply-shore-power-for-containerships>(2024.05.20. 검색)

2 홍해 사태,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수송 능력 20% 감소 가능성²⁸⁾

-  글로벌 해운기업 머스크는 홍해에서 발생하는 교란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간 컨테이너 수송 능력이 2분기에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홍해에서의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머스크를 비롯한 해운사들은 지난 12월부터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우회하고 있음
 - 머스크는 길어진 항해 시간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연료 비용이 항해당 40% 높아졌으며, 아시아와 북유럽 및 지중해 간 컨테이너 운송 능력이 2분기에 15%에서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머스크는 선박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항만에 기항한 후, 더 작은 선박으로 환적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탕헤르항은 이미 포화 상태로 알헤시라스항이나 발렌시아항과 같은 대안 항만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머스크는 이러한 교란이 적어도 '24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병목 현상, 선박 혼잡, 장비 및 컨테이너 용량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항해하고 있고, 지금까지 12만 5천 개 이상의 추가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등 컨테이너 용량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힘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 스페인, 이스라엘행 선박의 카르타헤나항 기항 거부²⁹⁾

-  스페인은 지난 5월 16일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선박이 스페인 남동부의 카르타헤나 항구에 기항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음
- 오스카 푸엔테 스페인 교통부 장관은 Marianne Danica호가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고 있었으며, 5월 21일 카르타헤나항에 기항하기 위해 허가를 요청했으나 외무부에서 거절했다고 밝힘
 - 스페인 언론사 El Pais는 이 선박이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출발하여 약 27톤의 폭발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편, 이 결정은 스페인 집권 사회당과 극좌 세력 간에 이스라엘 항만으로 무기를 운송하는 선박의 통과 허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내려짐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8) Reuters(2024.05.06.), <https://www.reuters.com/business/red-sea-disruption-cuts-q2-capacity-by-15-20-maersk-says-2024-05-06/>(2024.05.20. 검색)

29) Reuters(2024.05.16.),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spain-denied-port-call-ship-carrying-arms-israel-2024-05-16/>(2024.05.20.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뉴캐슬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계획 추진³⁰⁾

■ 호주 뉴캐슬항은 '24년 5월 13일, 뉴사우스웨일즈(이하 NSW) 포트에 1,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힘

- 보상금 지급은 독립 가격 및 규제 위원회(IPART)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뉴캐슬항은 보타니항과 컨테이너 운송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법적, 상업적 제한을 해소하게 됨
- 뉴캐슬항은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 NSW 화물 개혁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기존 뉴캐슬항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던 규제가 일부 해소되면서 마지막 규제 및 정책 장애물인 NSW 화물 및 포트 정책을 제거하고, 계획 승인, 투자 및 건설에 집중한다고 밝힘
- 최근 NSW 교통부는 화물 정책 개혁 협의 문서를 발표하며 경쟁을 장려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캐슬항은 항상 공정한 경쟁 기회를 원했으며, 이 정책 개혁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뉴캐슬 컨테이너 터미널은 과거 BHP 철강 공장이 있었던 메이필드 지역 90헥타르 부지에 위치할 예정임

- 제안된 터미널은 현재 보타니항와 브리즈번항을 통해 수출되는 북부 및 중부 NSW에서 생산된 면화, 곡물, 콩류, 육류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0) NSW nationals(2024.05.14.), <https://www.nswnationals.org.au/moylan-welcomes-port-of-newcastle-container-terminal-push/>(2024.05.22. 검색)

6) 아프리카



1 AD Ports, 앙골라 루안다항에 3억 7,900만 달러 투자³¹⁾

- ’24년 4월 23일, AD Ports Group은 앙골라 루안다 다목적 터미널에 대한 20년간의 운영권을 확보, AD Ports는 초기 3년 동안 터미널 현대화 및 물류 사업 개발에 2억 5,1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전체 운영 기간 동안 투자 금액은 최대 3억 7,900만 달러(한화 약 5,200억 원)로 예상됨
 - 이번 협정에 따라 기존 다목적 시설은 컨테이너 및 RO-RO 터미널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며 재개발은 ’26년 3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컨테이너 처리량은 연간 2만 5천 TEU에서 35만 TEU로, 차량 처리량은 4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AD Ports는 현지 물류 및 운송 회사인 Unicargas와 Multiparques와 협력하여 터미널을 운영할 공동 벤처에 81% 지분을, 그리고 앙골라의 물류 시장을 지원할 또 다른 공동 벤처에 90% 지분을 확보함
 - AD Ports의 자회사 Noatum Logistics는 Unicargas와의 또 다른 공동 벤처를 통해 현지, 지역 및 국제 고객을 위한 통합 물류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이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Multiparques의 비아나 내륙 컨테이너 창고로 이동시키고, 앙골라 및 인근 국가로의 단거리 및 장거리 운송을 제공할 것임
- 앙골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 루안다항은 앙골라 전체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 물동량의 76% 이상을 처리하며, 중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환적 허브로서 콩고 민주 공화국과 잠비아를 포함한 내륙 국가들에 원활한 무역 접근을 제공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1) Splash(2024.05.22.), [https://splash247.com/ad-ports-earmarks-up-to-379m-for-angolan-port/\(2024.05.22. 검색\)](https://splash247.com/ad-ports-earmarks-up-to-379m-for-angolan-port/(2024.05.22.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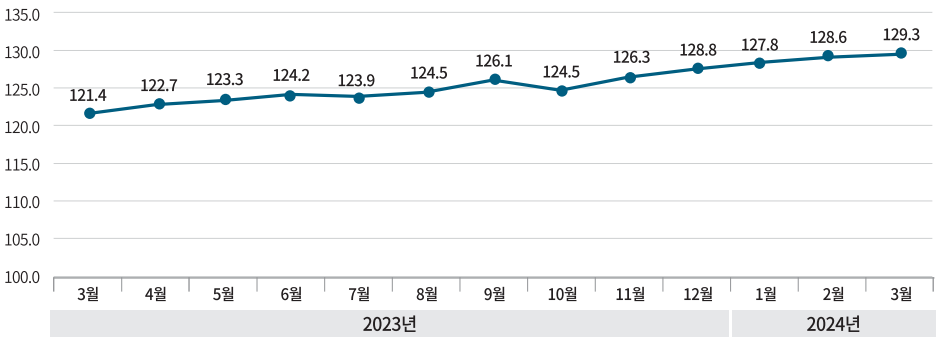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4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6.5% 증가³²⁾

- ’24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129.3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은 138.9p로 전월 대비 0.1% 감소하여 정체 국면에 진입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4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유럽 항만에서의 물동량 처리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10.8%,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한 114.9p를 기록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1.4	122.7	123.3	124.2	123.9	124.5	126.1	124.5	126.3	128.8	127.8	128.6	129.3	0.5	6.5
China Index	136.3	136.7	137.5	139.4	137.7	139.2	138.7	135.4	138.2	145.1	142.6	139.0	138.9	-0.1	1.9
North Range Index	98.7	108.8	105.8	106.4	107.4	104.7	103.5	103.8	101.7	102.6	100.8	103.7	114.9	10.8	16.4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5.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2) 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324>(2024.05.15. 검색)

2 머스크, 올해 컨테이너 무역 성장 개선 전망³³⁾

- 머스크는 올해 컨테이너 무역 성장이 2.5%에서 4.5%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는 지난 2월의 전망치 대비 개선된 수치임
 - 이러한 전망은 후티 반군 공격에 따른 수에즈 운하 통과 차질 문제, 지속된 가뭄에 따른 파나마 운하 통행 선박 제한 등 여러 가지 물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시됨
- 머스크가 다양한 물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전망을 제시한 이유는 가장 큰 혼란인 홍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확장했기 때문임
 - 머스크는 수에즈 운하를 대신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운항 변경 계획을 올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중단된 네트워크 등을 재개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우회항로에 따른 장거리 운송에 따라 운임이 상승하여 회사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여전히 머스크는 과잉 용량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다시 운임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3) Transport Topics(2024.05.02.), <https://www.ttnews.com/articles/maersk-improved-global-trade>(2024.05.15.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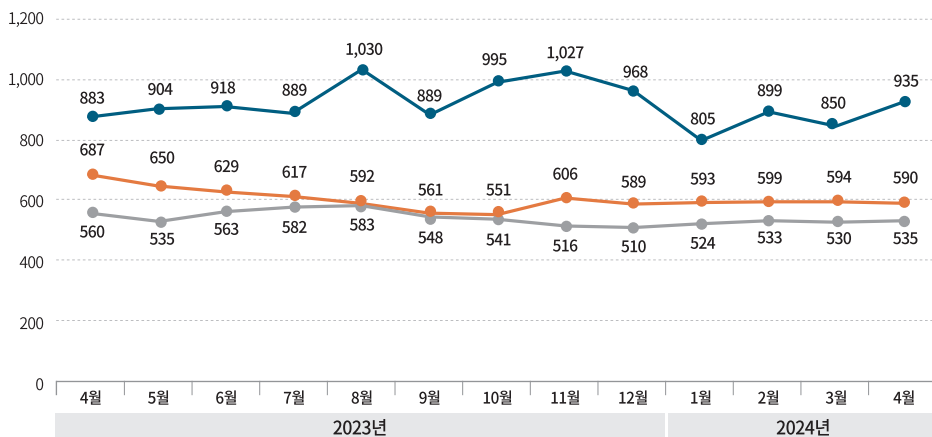
1

'24년 4월 말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옥수수 사료용 수입단가 소폭 상승³⁴⁾

☞ '24년 4월 말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소폭(-0.7%) 하락한 273달러/톤을 기록한 반면 옥수수 사료용 수입단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258달러/톤을 기록함

☞ 식용 콩(935달러/톤)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10.0% 증가한 반면 사료용 대두박은 전월 대비 0.9% 소폭 증가한 535달러/톤을 기록함

단위: 달러/톤



단위: 달러/톤

구분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24.1	'24.2	'24.3	'24.4
밀	제분	413	421	390	379	355	347	324	336	328	341	335	332	332
	사료용	356	352	353	348	342	329	308	292	277	273	274	275	273
옥수수	제분	345	346	339	325	300	305	289	276	276	292	267	272	275
	사료용	334	337	336	332	321	305	284	263	252	258	258	257	258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2024.05.02.),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741/page/1(2024.05.17. 검색)

2 EU, 세이프 가드 조치가 추가된 우크라이나 자율무역조치 (Autonomous Trade Measures) 연장 승인³⁵⁾

- 유럽의회는 지난 4월 23일, 우크라이나의 자율무역조치를 '25년 6월 5일까지 연장 승인함
 - 자율무역조치는 러-우 전쟁 발발에 따라 '22년 6월 이후 EU로 수출되는 모든 우크라이나 제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3년 5월에 1년 연장된 후 올해 1월에 추가 연장이 제안됨
- 금회 연장합의에는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농업인들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 옥수수, 곡물, 가금류 등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가 추가되었음
 - '24년 초부터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내 주요 곡물 수출국의 농부들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등에 불만을 제기해왔음
 - 해당 품목들에 대해 우크라이나 수입량이 '21년 하반기부터 '23년 하반기까지의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2024.05.02.),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741/page/1(2024.05.17.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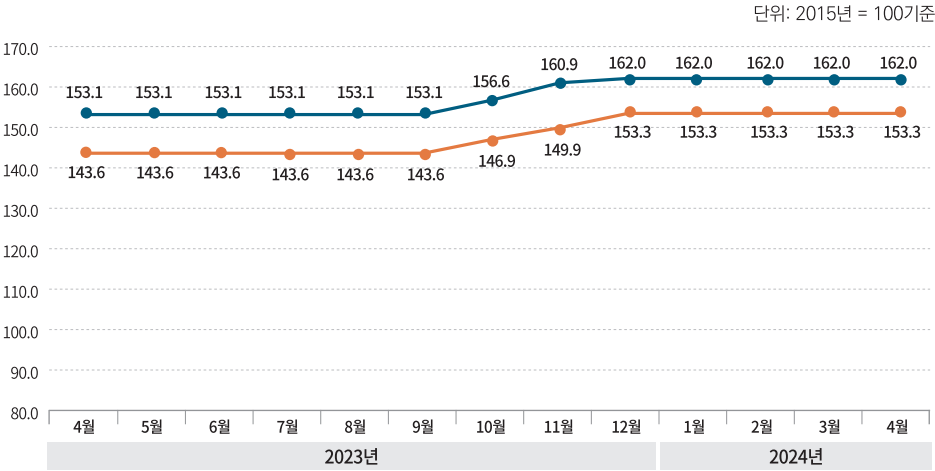


1 4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4년 4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2.0p 및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6.8%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5개월간 보합세를 나타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53.1	153.1	153.1	153.1	153.1	153.1	156.6	160.9	162.0	162.0	162.0	162.0	162.0	0.0	5.8	
고로슬래그	143.6	143.6	143.6	143.6	143.6	143.6	146.9	149.9	153.3	153.3	153.3	153.3	153.3	0.0	6.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5.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5.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24년 1분기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시멘트 출하량 감소³⁶⁾

📊 '24년 5월 19일,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04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함

- 시멘트 출하량도 13.3% 줄어든 1,053만 톤을 기록, 재고는 61.3% 증가한 129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의 수요가 줄어든 결과임
- 레미콘 출하량은 건설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레미콘 출하량은 1억 3,360만 m³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올해 출하량은 작년보다 2.3% 줄어든 1억 3,050만 m³로 추산됨
- 시멘트와 레미콘 수요 감소로 인해 한일현대시멘트의 1분기 시멘트 매출은 1,0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 영업이익은 72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20% 감소했으며 쌍용C&E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7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함

📊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실적 악화도 불가피, 건설업계는 3월부터 5월까지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는 매출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지난해 하반기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기저 효과로 1, 2분기까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개선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도 사라질 전망이다
- 여름 장마철과 겨울철은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는 시기로, 건설 수요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건설 선행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하락이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매일일보(2024.05.19.),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422>(2024.05.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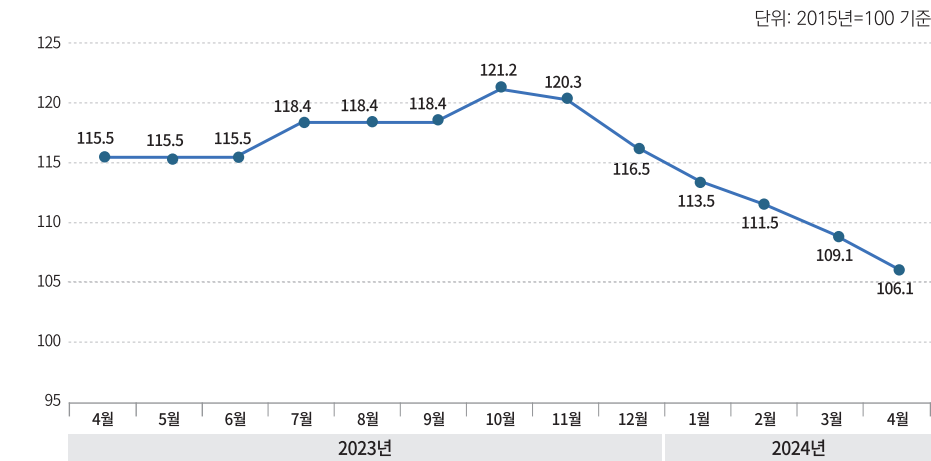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4월 생산자물가지수 106.1p 기록, '23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24년 4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함
- ’22년 3월부터 ’2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23년 11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15.5	115.5	115.5	118.4	118.4	118.4	121.2	120.3	116.5	113.5	111.5	109.1	106.1	-2.7	-8.1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5.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5.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간담회 개최³⁷⁾

’24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 이번 간담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업계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간담회의 주요 목표는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임
- 특히, 최근 3년간 골재 가격이 36.5% 상승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골재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골재 공급원 부족과 유통비 상승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골재업계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건의사항을 제시, 골재업계는 먼저 바다골재 채취 허가 주체를 일원화하고 채취 절차를 간소화하여 골재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골재 품질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순환골재 KS 인증제도를 연내 완료하고 불량골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암석과 토사의 분리배출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함
- 국토교통부는 골재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며 여러 대응 방안을 발표, 골재와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급원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또한, 골재 품질 강화를 위한 기준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와 안전을 강화할 방침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7)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5.14.),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990>(2024.05.17.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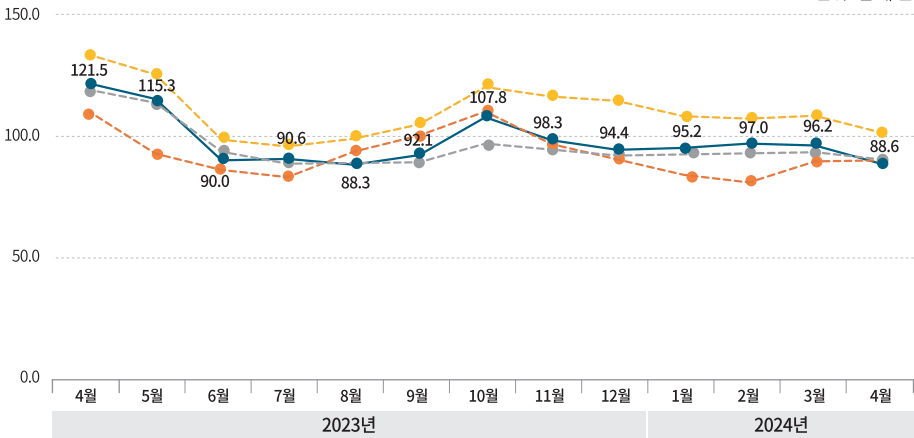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1 '24년 4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4월 평균가는 톤당 88.6달러로 전월 대비 7.9% 감소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 유연탄 가격이 0.5% 증가한 반면, 호주 뉴캐슬산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은 각각 7.9%, 3.2%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21.5	115.3	90.0	90.6	88.3	92.1	107.8	98.3	94.4	95.2	97.0	96.2	88.6	-7.9	-27.1
리차드베이	110.0	92.7	86.0	83.1	93.6	100.2	110.1	96.7	89.7	84.1	81.0	89.6	90.1	0.5	-18.1
칼리만탄	119.0	113.7	93.5	88.7	88.5	89.2	96.9	94.5	91.9	92.6	92.7	93.3	90.4	-3.2	-24.1
중국남부	133.4	125.4	98.6	95.8	98.8	104.9	120.1	116.3	114.5	108.1	107.2	108.4	101.5	-6.4	-23.9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5.23.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G7, '35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³⁸⁾

📍 지난 4월 30일, G7은 '35년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함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으로 이뤄진 G7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합의로 탈석탄화에 속도를 내면서 원전 확대 등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하겠다는 표현을 최종 선언문에 담은 바 있음
-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화석연료 퇴출에 거세게 저항함에 따라 퇴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데에서 기인함
- 반면 G7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은 감소 추세지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단기 안정성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G7의 결정으로 석탄 감축 및 폐지 등의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음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8) 동아사이언스(2024.05.01.),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5184>(2024.05.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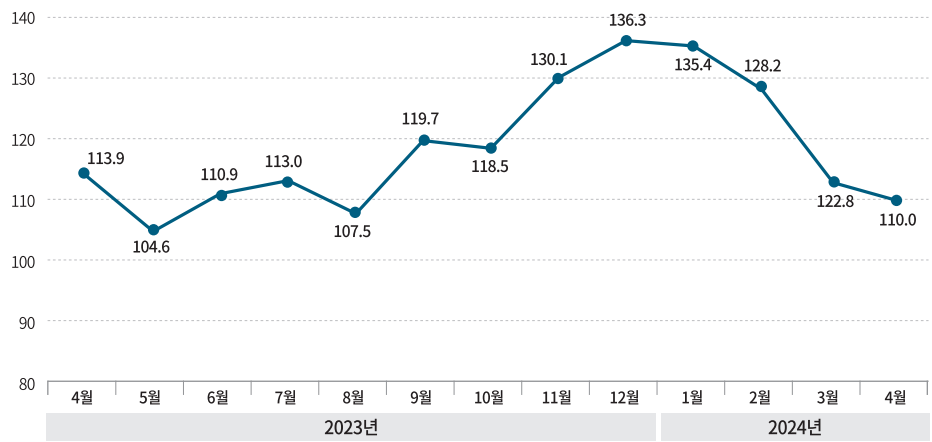
6) 철광석



1 '24년 4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한 110.0달러 기록

- '24년 4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10.0달러로 전월 대비 10.4%,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함
- 중국 경기 둔화 및 철강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3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13.9	104.6	110.9	113.0	107.5	119.7	118.5	130.1	136.3	135.4	128.2	122.8	110.0	-10.4	-3.4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5.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인도, 저품위 철광석 수출 관세 계획 폐기³⁹⁾

인도는 중국에 대한 철광석 해외 판매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품위 철광석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인도는 세계 4위 철광석 생산국으로 철광석 전체 출하량의 약 9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23/2024년 회계연도 기준 철광석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18% 증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중소형 철강업체들이 정부에 수출 증가 억제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수출 관세 부과에 대해 고려함
- 그러나 인도 정부는 저품위 철광석의 수출 증가가 자국 내 철강업체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수출 관세 부과 계획을 폐기함
- 중소형 업체들은 대형 제철소와 달리 낮은 등급의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의 꾸준한 공급이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음

한편, 인도의 철강 소비량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철광석 수요 시장에서의 주요 국가로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9) REUTERS(2024.05.01.),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unlikely-impose-export-curbs-low-grade-iron-ore-source-says-2024-05-01/> (2024.05.1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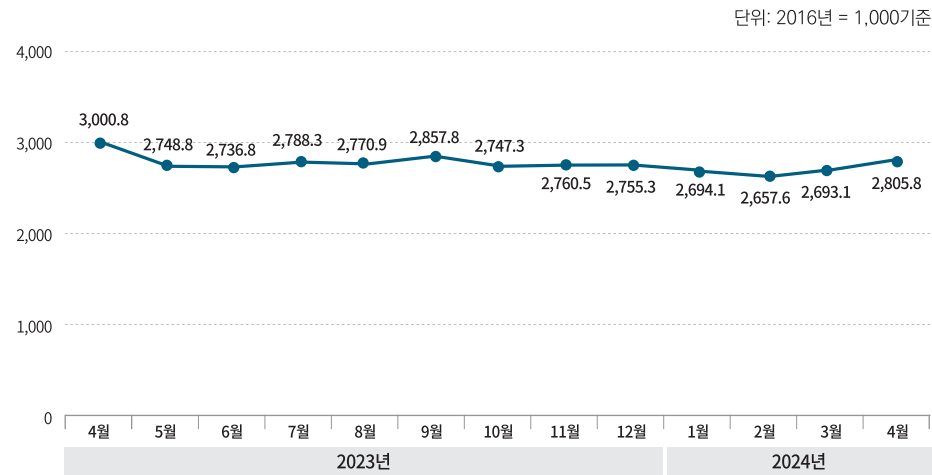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4월 광물종합지수는 2,805.8p로 전월 대비 4.2% 증가

’24년 4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4.2%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3,000.8p) 대비해서는 6.5% 하락한 2,805.8p를 기록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 종합지수	3,000.8	2,748.8	2,736.8	2,788.3	2,770.9	2,857.8	2,747.3	2,760.5	2,755.3	2,694.1	2,657.6	2,693.1	2,805.8	4.2	-6.5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5.23.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국제에너지기구(IEA), 친환경 광물 10년 뒤 공급 부족 전망⁴⁰⁾

IEA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풍력발전, 태양광 등에 필요한 친환경 광물이 10년 뒤에는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함

- IEA는 '35년까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목표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구리는 수요 대비 70%, 리튬은 50%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전망의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에 쓰이는 광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지난 '23년 12월 기준 리튬 가격은 전년 대비 75%, 코발트 및 니켈, 흑연은 30~45%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때 핵심 광물의 투자는 '22년 대비해서는 하락함
- 친환경 광물의 전체 시장 규모는 '40년까지 7천 700억 달러(1천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기온 상승폭 1.5도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 채굴에 약 8천억 달러(1천 86조 원)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IEA는 추산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0) 한국경제(2024.05.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76352Y>(2024.05.18. 검색)

8) 목재



1 '24년 1~4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52만 7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

- 전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목재 수요 감소 및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으로 유럽으로부터의 목재 수입 물량이 감소함
- 합판,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24.5% 및 15.2% 증가하였으나, 제재목, 성형목재 및 목재펠릿은 9.1%, 1.1% 및 5.3% 감소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4년 누적 (1-4월)	2023년 누적 (1-4월)	증감률(%)
원목(천m ³)	527	710	-25.8%
제재목(천m ³)	448	493	-9.1%
성형목재(톤)	27,088	27,387	-1.1%
합판(천m ³)	464	416	11.5%
파티클보드(천m ³)	514	413	24.5%
섬유판(천m ³)	91	79	15.2%
목재펠릿(천 톤)	1,180	1,246	-5.3%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4.05.20.),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6149&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4.05.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6149&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4.05.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판매부진과 고환율로 목재업계 회전율·수익률 저조⁴¹⁾

- 
건설경기 침체와 고환율 지속으로 인해 국내 목재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입물량과 금액이 줄어들며, 업계는 장기 불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24년 3월,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의 누계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 수입금액은 18% 줄어들었으며, 이는 주요 품목들의 단가 하락에 기인함
 - 주요 건설자재인 원목과 제재목의 수입물량은 각각 19.7%, 14.8% 감소, 반면 합판과 마루판의 수입은 각각 8.7%, 6.5% 증가했으나 이는 국내 합판회사 2곳의 생산 중단에 따른 것으로 수요 증가로 보기 어려움
 - 고환율 지속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목재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는 '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목재산업의 침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목재산업이 수입 원자재와 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는 목재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 건설자재 수요 감소로 인한 판매 부진과 수익률 저하는 목재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며 인테리어 자재의 판매도 부진한 상황임
 - 고환율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만들어 물가상승과 소비침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재업계는 회전율과 수익률 모두 바닥을 치
- 
목재산업 전문가들은 공공건축이나 공공시설에 목재 사용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목조건축이 주류가 아니고, 국산 목재를 이용한 공공건축도 시작 단계에 불과, 따라서 공공건축에서 목재 사용을 늘리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함
 - 또 다른 전문가는 목재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목재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1) 한국목재산업신문(2023.05.17.), <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272>(2024.05.18. 검색)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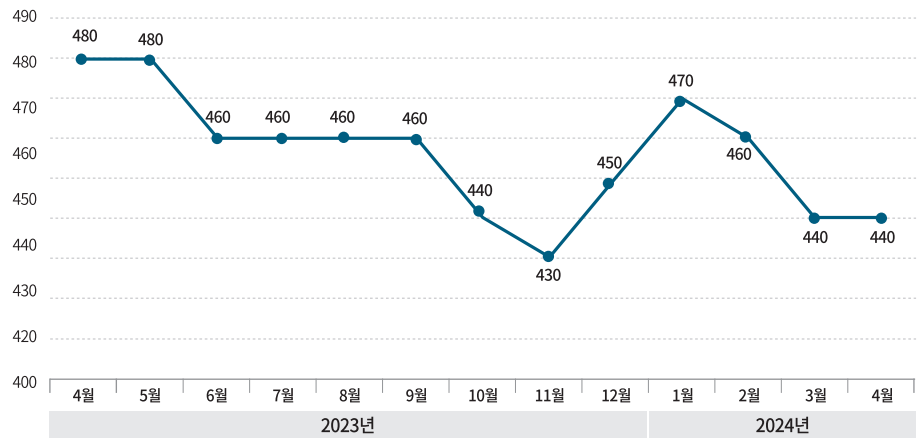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약보합세

- 국내 4월 생철 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톤당 44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3%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까지 2개월간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고철 가격은 '24년 2월부터 다시 하락하였고, 3월부터는 톤당 44만 톤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천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80	480	460	460	460	460	440	430	450	470	460	440	440	0.0	-8.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5.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5.23](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5.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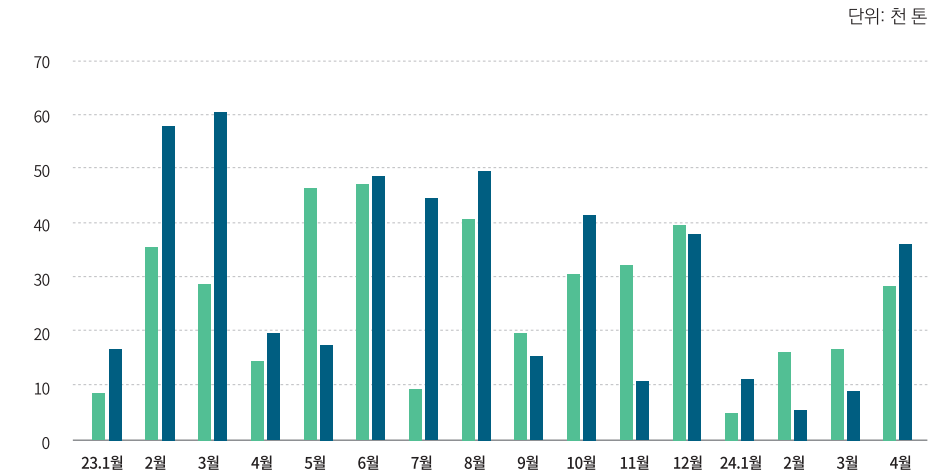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고철, 4월 수입 전월 대비 25.3% 증가⁴²⁾

- 4월 미국과 러시아산 고철 수입이 급증하면서 월별 수입 규모가 연내 최고치를 기록함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4월 고철 수입은 24만 9천 톤으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25.3% 증가한 수준임
 - 예년에 비해 아직 저조한 수준이나 올해 1월 최저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분기 저조했던 러시아와 미국산 수입이 크게 증가함
 - 국가별 수입은 일본산이 15만 9천 톤으로 전월 대비 5.1% 증가했으며, 미국산(3만 6천 톤), 러시아산(2만 8천 톤)은 각각 313.1%, 71.7% 증가함
 -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미국산 고철 3만 톤이 도착한 데 이어, 한국특강도 러시아산을 성약하는 등 2분기 들어 뚜렷한 수급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국내 고철 수입 추이

러시아산



자료: 철강금속신문(2024.05.15.),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5/15/PS010515010100301B0001.pdf> (2024.05.20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2) 철강금속신문(2024.05.15.),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5/15/PS010515010100301B0001.pdf>(2024.05.20.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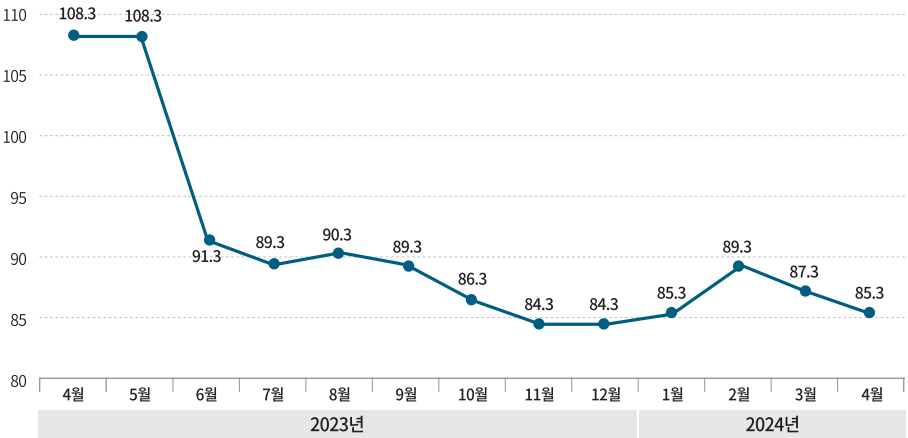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하락세 유지

- 4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2.3% 하락한 85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1.2%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에 급격히 하락하여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08.3	108.3	91.3	89.3	90.3	89.3	86.3	84.3	84.3	85.3	89.3	87.3	85.3	-2.3	-2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5.23.),[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5.23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5.23%20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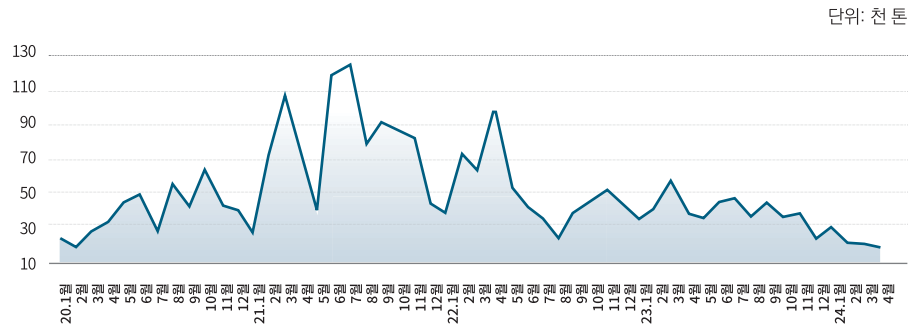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일본산 철근 점유율 확대 지속⁴³⁾

-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국내 철근 수입 시장이 축소된 가운데, 일본산 철근은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 폭을 보여 점유율이 확대됨
-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철근 수입은 9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8% 감소함
 - 국가별로는 1~4월 일본산이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한 6만 톤, 중국산이 89.5% 급감한 1만 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베트남산 철강은 2만 4천 톤을 기록함
 - 이에 따라 국가별 수입 점유율은 일본산이 63.9%로 전년 동기(44.8%) 대비 19.1%p 상승했으며, 베트남산은 25.2%, 중국산은 44.4%p 하락한 10.8%를 기록함

철근 수입 추이



자료: 철강금속신문(2024.05.08.),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5/08/PS010508010100401B0001.pdf> (2024.05.20.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3) 철강금속신문(2024.05.08.),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5/08/PS010508010100401B0001.pdf> (2024.05.20. 검색)

11) 자동차



1 '24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내수·수출·생산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⁴⁴⁾

- 3월 내수·수출·생산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0%, 6.1%, 10.8% 감소함
-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및 전년 대비 영업일수 감소(-2일), 전기차 시장 부진,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 감소한 146,019대를 기록함
 -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 시장이 판매 호조를 보였으나, 조업일수 감소,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246,765대를 기록함
 - 생산은 현대 경기부진과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한 365,520대를 기록함

단위 : 대, 백만 \$, %

'24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65,851	429	115,745	146,019	378,228	26.2	-12.0	-11.9
(국산차)	1,451,663	140,748	366,501	99,492	120,769	323,630	21.4	-14.2	-11.7
(수입차)	287,586	25,103	62,973	16,253	25,250	54,598	55.4	0.6	-13.3
수출	2,766,271	262,914	684,582	198,608	246,765	688,607	24.3	-6.1	0.6
(완성차 수출액)	70,864	6,496	17,070	5,153	6,169	17,533	19.7	-5.0	2.7
(부품 수출액)	22,954	2,052	5,793	1,981	1,911	5,805	-3.5	-6.8	0.2
생산	4,243,597	409,811	1,064,254	300,459	365,520	1,024,443	21.7	-10.8	-3.7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4.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4&menunum=0004#\(2024.05.21.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4&menunum=0004#(2024.05.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4.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4&menunum=0004#\(2024.05.21.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4&menunum=0004#(2024.05.21. 검색))

2 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100%로 대폭 인상⁴⁵⁾

-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함
 -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백악관은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22년부터 '23년까지 70% 증가해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힘
-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 6,510억 원) 규모이며,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함
 - 추가적으로 7.5%가 부과되던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연내 25%로 인상할 계획임
 - 그 외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반도체', '태양 전지',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STS 크레인', '주사기 및 바늘', '마스크 및 개인 보호 장비',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에너지경제(2024.05.14.),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14020186804\(2024.05.21. 검색\)](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14020186804(2024.05.21. 검색))

3 중국 우링차, 국내 전기차 시장 진입⁴⁶⁾

중국의 우링차가 우리나라에서 경형 전기 상용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임

- 우링차가 판매하는 차종은 1톤 이하 전기밴으로 초기 판매 물량은 300대이며, 전기차 보조금과 할인 혜택을 통해 1,000만 원 후반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임
- 초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우링차가 판매할 전기밴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30kWh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00km 이상이며, 최대 350kg 적재가 가능하고 양문형 슬라이딩 도어를 갖춰 상·하차가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중국 비야디(BYD)가 국내 전기 승용차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링차가 경형 상용차 판매를 개시하면서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전자신문(2024.05.15.), <https://www.etnews.com/20240514000213>(2024.05.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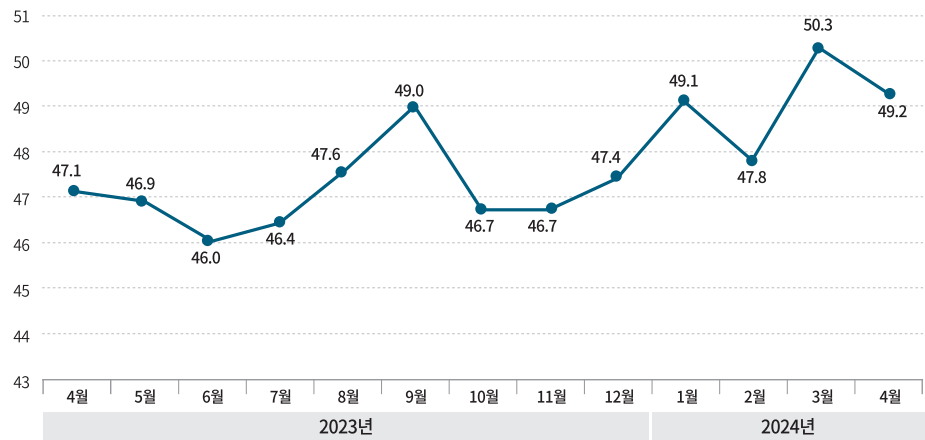
12) 잡화



미국 PMI
(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1 '24년 4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⁴⁷⁾,
49.2p 기록⁴⁸⁾

- 4월의 미국 제조업 PMI는 49.2p로 17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50.3p)을 기록했던 3월 대비 1.1p 감소함
- 4월 신규주문 수가 전달 대비 감소함(51.4p→49.1p)에 따라 미국 제조업이 다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 Trading Economics (2023.05.01.), KMI 작성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7)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48) Trading Economics(2023.05.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4.05.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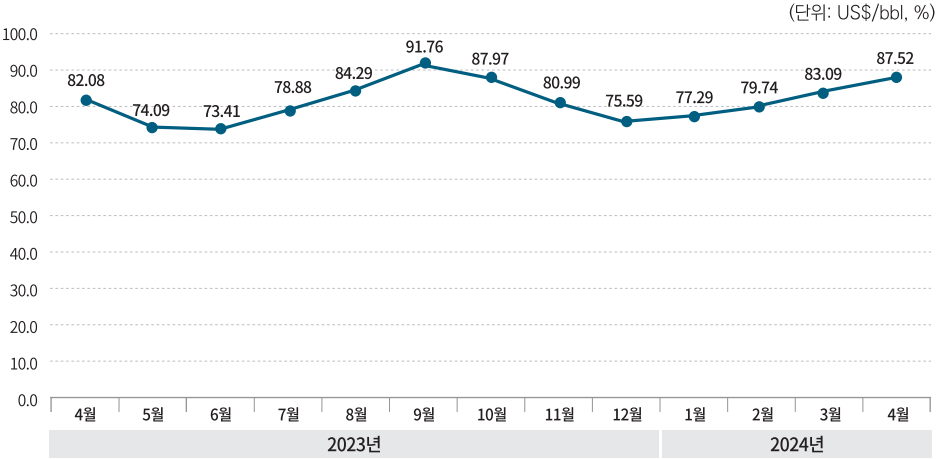
13) 유류



국제 원유 가격 추이

1 '24년 4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증가

- 국제유가는 '24년 1월에 반등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4월 배럴당 평균 87.52달러를 기록함
- 지속되는 러-우 전쟁, 이-팔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24.04.01)으로 인한 이란의 보복공격('24.04.13)으로 불안해진 중동 정세가 이란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24.05.19)·사망 사건 등으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음
- OPEC+의 감산과 중동에서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올 초부터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3.44	74.96	74.99	80.45	86.46	93.25	89.75	83.55	77.33	78.85	80.88	84.18	89.17	5.9	6.9
Brent	83.37	75.69	74.98	80.16	85.10	92.59	88.70	82.03	77.32	79.15	81.72	84.67	89.00	5.1	6.8
WTI	79.44	71.62	70.27	76.03	81.32	89.43	85.47	77.38	72.12	73.86	76.61	80.41	84.39	4.9	6.2
평균	82.08	74.09	73.41	78.88	84.29	91.76	87.97	80.99	75.59	77.29	79.74	83.09	87.52	5.3	6.6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5.23. 검색)

2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 감산정책, 변화 전망⁴⁹⁾

📌 OPEC+는 '22년 11월부터 원유 생산량 감산을 시행 중이며, '24년 6월까지 공식 생산량 감산·자발적 생산량 감축 중임

- 원유 감산 규모는 총 673만 b/d이며, 이 중 사우디의 공식·자발적 생산량 감산량은 150만 b/d임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는 오랜 감산으로 인해 균형재정유가*가 상승하여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가가 손익분기점 유가를 하회함

* 산유국의 재정이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의 유가

📌 사우디 정부는 석유수익 감소로 자금난으로 경제 다각화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4년 하반기에 감축을 일부 중단할 것으로 보임

- 사우디는 '23년 예산 적자를 기록했으며, 최근 자금난으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계획 중 하나인 '네옴시티(Neom City)'의 규모를 축소할 바 있음
- IMF는 사우디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7월부터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S&P Global Commodity Insight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8월까지 자발적 감축 정책을 일부 해제하고 원유 생산량을 50만 b/d 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 외, Argus는 북반구 여름철 석유수요 증가에 맞춰 OPEC+가 추가 감산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4.2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5.21. 검색)

3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및 가스 부문 제재 완화 조치 미연장⁵⁰⁾

- 베네수엘라 여야가 선거 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은 석유 수출 등을 허용하는 일반 라이선스 44호를 한시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 라이선스 44호는 '23년 10월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발표했으며, 미국은 4월 18일로 만료되는 베네수엘라 석유 및 가스 부문 제재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음
 -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행정부가 로드맵 관련 합의사항 중 일부는 이행하였으나 야당 후보의 대선 참여 허용 등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함
-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미국은 제재를 복원하면서 기존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에 대해 45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동 기간 일부 유조선이 베네수엘라 석유의 선적·출항은 가능하나 일부 물량은 미국에 개별적인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재무부는 기업별 특정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허용하였으나, 기존 허가받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신규 투자를 포함한 신규 사업 진출은 만료된 일반 인허가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4.25),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5.21. 검색)

4 이라크, OPEC+ 추가 감산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 자본 유치⁵¹⁾

이라크는 6월에 개최될 OPEC+ 회의에서 추가 감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 사우디는 '22년부터 OPEC+의 감산을 주도하면서 최대 생산능력 대비 약 300만 배럴을 적게 생산하였으나, 전쟁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러시아와 국토재건 재원을 마련하는 이라크 등은 담합 약속을 어겨왔으며 앙골라는 감산에 불만을 품고 지난 1월 OPEC을 탈퇴함
- 이라크는 미국과의 전쟁,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내전 등 오랜 전쟁 여파로 산유국임에도 정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과 전기도 부족하여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음

이라크는 파괴된 석유 인프라 재건을 위해 중국 자본을 유치하여 생산량을 늘릴 계획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라크가 지난달 평균 하루 426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고, 이는 하루에 902만 배럴을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OPEC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중국은 이라크 수출 석유의 약 30%를 구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안화 석유 거래도 허용함
-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해 온 이라크는 석유 증산을 위해 중국을 파트너로 선택하여 중국 석유 기업 열 곳 이상의 석유·가스 탐사권을 낙찰받았으며, 신규 유전 개발을 통해 '30년까지 일일 원유 생산량을 600만 배럴까지 늘릴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한국경제(2024.05.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24262i>(2024.05.21.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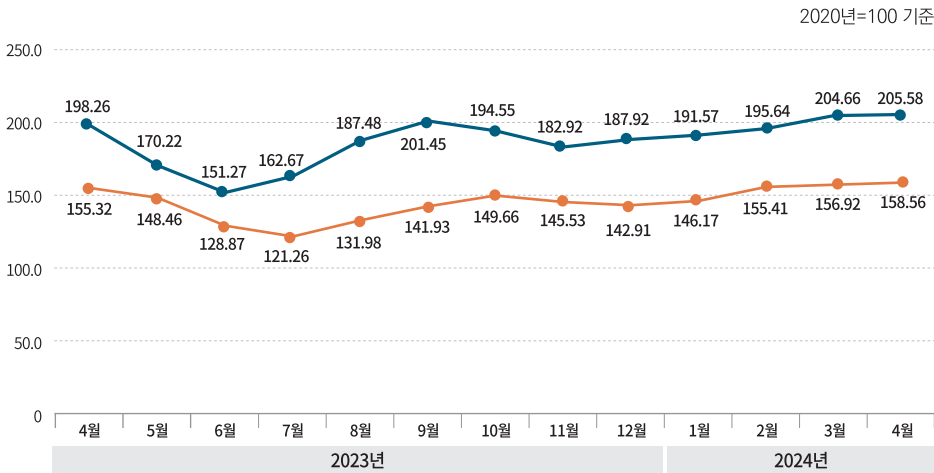


1 나프타·에틸렌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동반 상승

-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23년 12월과 '24년 1월 이후 반등하여 4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205.58p를 기록함
 - 나프타 크래킹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158.56p를 기록함
 -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으나,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에서의 리스크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나프타와 에틸렌 생산자물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98.26	170.22	151.27	162.67	187.48	201.45	194.55	182.92	187.92	191.57	195.64	204.66	205.58	0.4	3.7	
에틸렌	155.32	148.46	128.87	121.26	131.98	141.93	149.66	145.53	142.91	146.17	155.41	156.92	158.56	1.0	2.1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5.22.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5.22.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불황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불가피⁵²⁾

-  한국 석유화학사는 기반시장 위축과 원가경쟁력이 약화로 사업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과거 40년간 석유화학사의 이익창출력은 우상향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제고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이번 저점을 변곡점으로 추세가 변동될 수 있음
 - 중국은 러시아 및 이란산 저가 원료를 사용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북미는 셰일가스에서 추출된 에탄 설비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업체는 동남아시아나 중동 업체들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짐
-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미국과 일본의 구조 개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60년대 기술 범용화에 따라 석유회사가 화학회사를 인수하여 재편되었으며, 인수된 화학사는 인수대금으로 정밀화학과 제약사업 투자를 늘림
 - 일본은 내수시장 둔화로 기업이 자체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설 유인이 떨어지자 정부 주도 재편을 단행함
 -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유희설비 통합과 매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연합뉴스포맥스(2024.05.0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982>(2024.05.21. 검색)

3 공멸위기 석유화학, 세제·금융·규제완화⁵³⁾

정부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함

- 중국 국유기업들이 낮은 가격으로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어 대응이 필요함
- LG화학이 지난해 1,44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롯데케미칼은 최근 2년간 1조 1,103억 원 손실을 보면서 두 회사는 공장매각 등 사업 재편에 나섰으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함

정부는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원활한 사업 재편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말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함

-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매각을 통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할 예정임
- 단기 지원책으로는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수입분에 대해 ‘할당관세 0%’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면제도 추진함
- 중장기 전략에는 M&A를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M&A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한국경제(2024.05.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493531>(2024.05.21.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정책·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5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